

2023.12.25 이·비욘뉴얼詩人 翻訳ワークショップ

1. 「수색역」 2. 「동백에 새 떼가 날아와서는」 3. 「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수색역」を翻訳して提出して下さい。
他の2篇はざっと目を通しておくぐらいで結構です。

1. 수색역

복잡한 곳일수록
들어갈 때 구조를 외우면서
나올 때를 염두에 둡니다
재채기를 할 때 얼른 양손이 나서는 것처럼

모든 순서가 되었습니다, 당신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 역의 막차 시간 앞에서 서성거리다

추운 그 역 광장에
눈사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2. 동백에 새 떼가 날아와서는

갑자기 춤을 추는 병에 걸리자
갑자기 사람을 끌어안는 병에 걸리자

커다란 동백나무에 날아와 숨은 새 떼들이
한없이 재잘대기 시작하자
일제히 동백 꽃잎들이 푹푹 다 떨어지고

꽃잎들이 다 떨어지고 났는데도
정신없이 새들이 자꾸 울어서
가려주겠다고 가려주겠다고
소란히 동백 꽃들을 피워내
꽃으로 덮이고 되덮이는 나무

어질어질 실려가도 좋겠는 이런 날에는
어딘가에 갇히면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자

갑자기 홍이 나는 병에 걸리자
갑자기 뜨거워지는 병에 걸리자

불쑥 뒤돌아보는 병에 걸리자
불현듯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져서
누군가에게 자상해지고 싶은 병에 걸리자

갑자기 천천히 걷는 병에 걸리자
그러다 갑자기 공원의 나무 밑으로 달려가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미치고 이렇게 미쳐서
아는 이를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알은체하지 않는 병에 걸리자

심장을 다독이고 다독여서
빨래 마르는 동안만큼은 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병 이상으로 살자

3. 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내 목을 조른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오래
올 수 있으며
한참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내게 칼을 들이댄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게서 벗겨진 것들은 그에 의해
다시 더 작은 파편으로 파괴되고 없습니다

나를 어찌하려다 허공을 가르던 손톱으로
내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를 꺼내 가려던 그 사람을
세계는
이쪽으로 인도하여 나를 찾게 하지 말 것이며
세계는
그를 앞만 보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을 거듭 그 사람에게 하지 말 것이지만

내게 공중에 버려지는 고된 기분을
여러 번 알리러 와준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찾으러 가겠다고 길을 나서고 있는 나를
나는 어쩔 것인가요